

미국의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재연 가능성

최근 미국경제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

이에 따라 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경험했던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

적시고용 관행, 노동생산성 향상, 산업구조 변화 등 과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한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경제성장을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회복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I. 최근 미국의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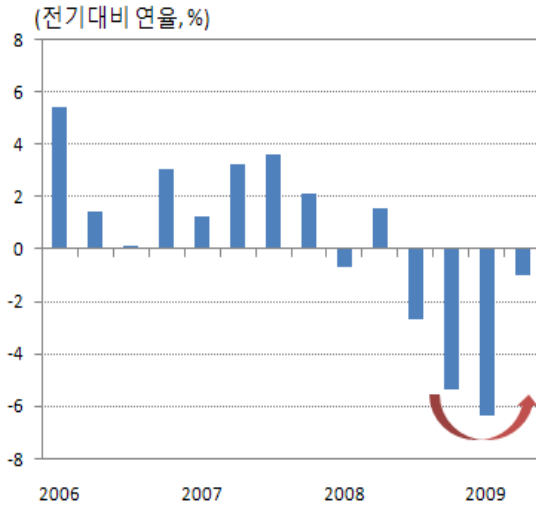
□ 최근 미국 경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물경기도 저점을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여건은 여전히 악화

○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Ted Spread가 9월 들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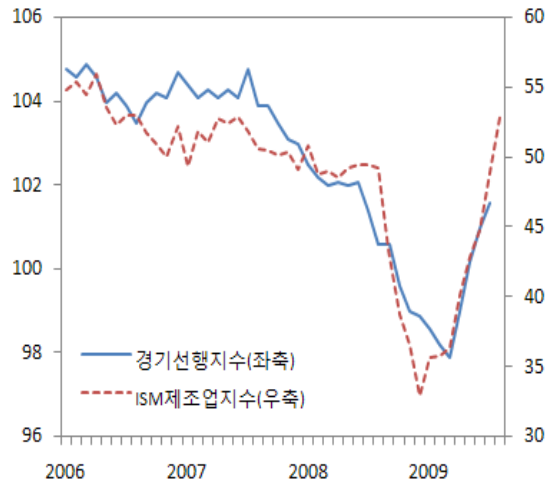
* 2007. 2월말 22bp → 2008. 10. 10일 464bp(최고점) → 2009. 9. 9일 16bp

○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크게 축소되고 경기선행지수가 4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ISM 제조업지수(52.9)는 8월 들어 19개월만에 기준치(50)를 상회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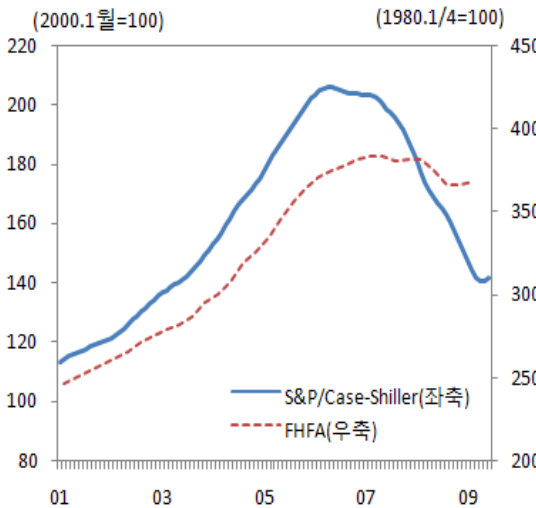
경기선행지수 및 ISM 제조업지수



자료: 미 상무부,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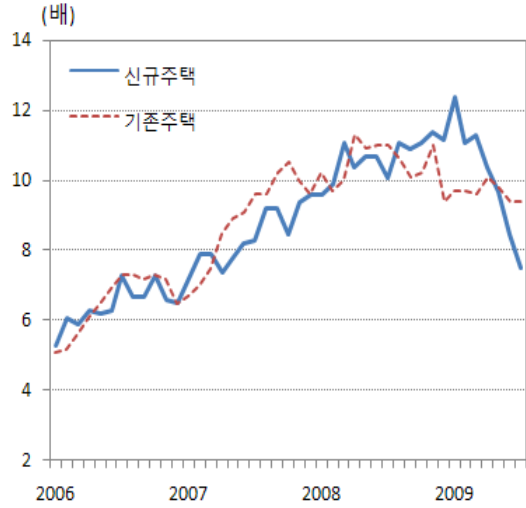
-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주택시장에서도 지난 5월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재고도 감소세로 전환

주택가격지수



자료: Bloomberg

주택재고 배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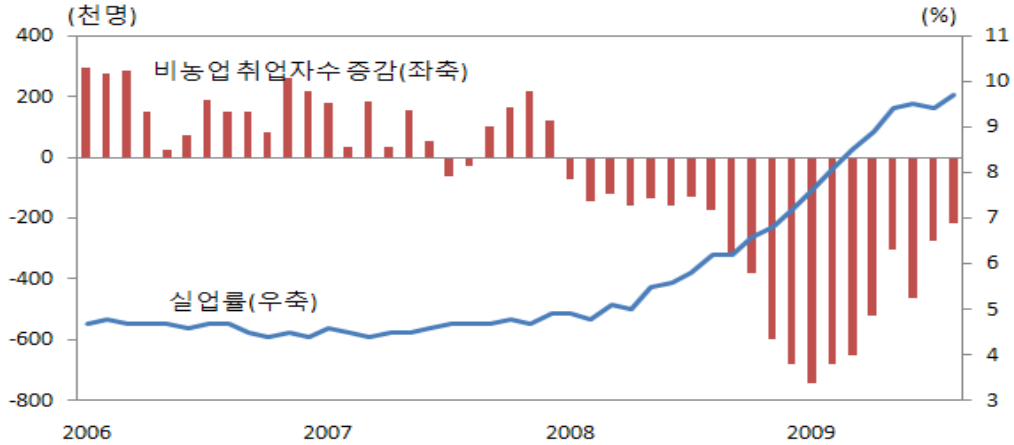


주: 1) 재고/판매

- 그러나 비농업부문 취업자가 월 2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 상승세도 지속*되는 등 고용여건은 여전히 불투명

* 8월 실업률은 9.7%로 1983. 6월(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

고용지표



자료: 미 노동부

- 미국의 GDP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나 고용사정은 상당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

* < 참고 >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의 Jobless Recovery” 참조

< 참 고 >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의 Jobless Re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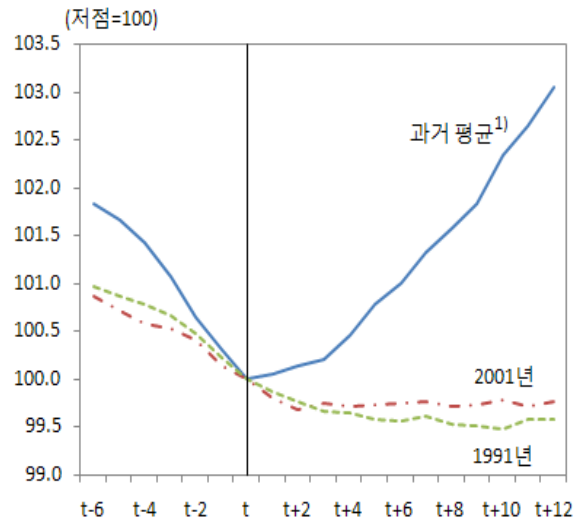
- 미국 경제는 1991년 및 2001년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경험
 - 경기후행 지표인 실업률은 통상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단기간 내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의 경기회복 과정에서는 각각 15개월 및 19개월 동안 상승세가 지속
 - 비농업 취업자수도 과거 경기회복기의 경우 저점을 통과한 이후 1년 동안 3.0% 증가하였으나 1991년과 2001년에는 각각 -0.2% 및 -0.4% 감소

실업률 비교

경기 저점	실업률 고점	시 차
54. 5월	54. 9월	4개월
58. 4월	58. 7월	3개월
61. 2월	61. 5월	3개월
70. 11월	71. 8월	9개월
75. 3월	75. 5월	2개월
80. 7월	80. 7월	0개월
82. 11월	82. 12월	1개월
91. 3월	92. 6월	15개월
01. 11월	03. 6월	19개월

자료: 미 노동부, NBER

비농업 취업자수 비교



주: 1) 50년대 이후 7번의 경기침체기 평균
 2) t는 경기 저점(trough)

II.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의 원인

- ◆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원인으로 ① 적시고용(just-in-time hiring) 관행의 확산 ②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 강화 ③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labor relocation) ④ 조직 혁신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음

1. 적시고용(just-in-time hiring) 관행의 확산

□ 경기회복 초기에 고용을 늘리게 되면(too-early hiring) 수요확대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채용인력의 해고가 불가피

○ 반면 경기회복을 확인한 후 고용을 늘리게 되면(too-late hiring) 비용절감의 장점은 있으나 수요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경쟁사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등의 비용이 발생

□ 따라서 경기회복기의 어느 시점에 채용을 본격화할 것인지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90년대 이후 IT 기술의 발달, 고용지원 산업 확대 등에 힘입어 기업은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섰음을 확인한 후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됨(적시고용, just-in-time hiring)

○ 구인 및 구직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취업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구직자 집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monster.com과 careerbuilder.com이 대표적. 미 인적자원관리협회(SHRM)에 따르면 오프라인의 채용비용은 한 사람당 \$3,295인데 비해 온라인의 경우 \$377로 1/10인 수준인 것으로 조사

- 또한 고용을 중개·대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고용지원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

전체 취업자중 고용지원 서비스 산업¹⁾의 비중

(%)

85년말	89년말	99년말	06년말
0.9	1.6	3.4	3.4

주: 1) employment service,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 이처럼 적시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가능한 한 정규직의 고용을 늦추면서(wait-and-see approach)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존직원의 초과근무, 최소 규모의 임시직 및 파트타임직 고용 등으로 수요확대에 대처

- 80년대까지의 경기회복기에는 임시직과 정규직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90년대 들어 패턴이 변화

— 1991년 회복기의 경우 저점 통과 후 1년간 정규직은 295,000명 감소한 데 비해 임시직은 54,000명 증가에 그침

— 2001년에도 저점 통과 후 2년까지 정규직의 감소 추세가 이어진 반면 임시직 고용은 91년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경기회복기의 임시직 및 정규직 증감

(천명)

		임시직	정규직	전 체
1991년 회복기	1년후 ¹⁾	54	-295	-241
	2년후	202	1,172	1,374
	3년후	451	4,140	4,591
2001년 회복기	1년후	25	-587	-562
	2년후	119	-874	-755
	3년후	298	986	1,284

주: 1) 경기 저점 이후의 기간

⇒ 적기고용을 위해 정규직 채용은 최대한 미루면서 임시직을 제한적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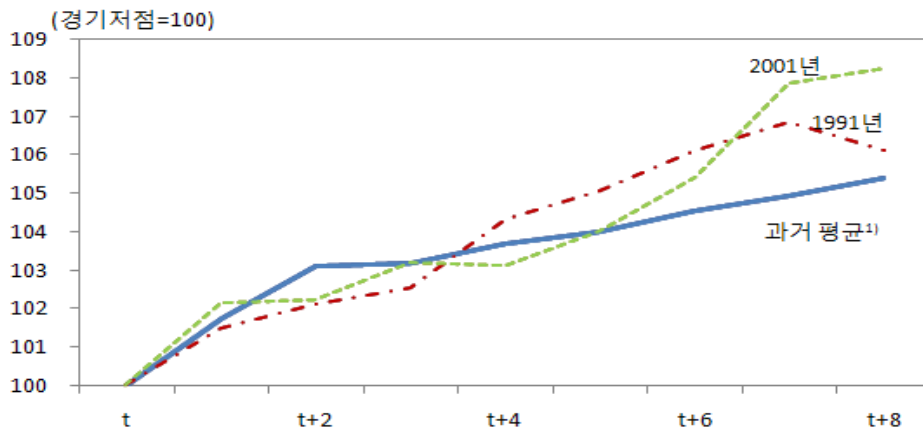
⇒ 이처럼 경기회복 초기에 임시직 활용도가 높으나 정규직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

* 임시직 비중이 1985년의 0.9%에서 2000년 2.9%까지 확대되었으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미미한 편

2.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기존 근로자의 업무역량 강화

- 비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은 90년대 이후 IT 기술의 발전, 컴퓨터의 존형 업무방식, 자동화 추진 등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

비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추이



주: 1) 1970년대 이후 네 번의 경기회복, t는 경기 저점
자료: 미 노동부

- 경기확장기에는 대체로 과잉고용(over-hiring)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잠재적인 노동생산성(potential labor productivity)을 전부 발휘하지 않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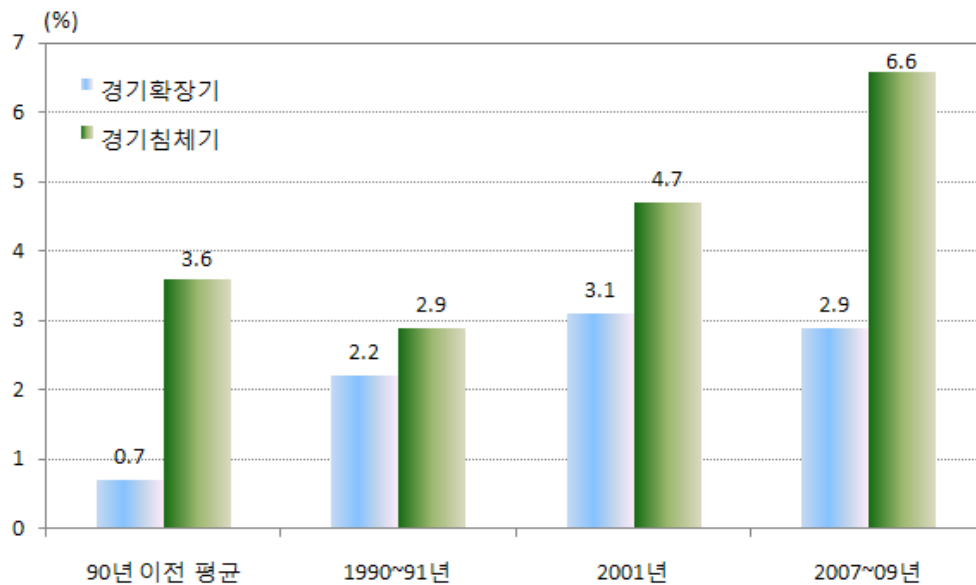
경기하강기에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면 기존 직원들은 잠재 생산성을 100% 가동

-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 근로자가 최대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신규채용을 억제*

* Bernanke 의장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으로 노동생산성의 빠른 증가를 지적("The Jobless Recovery", at the Global Economic and Investment Outlook Conference, 2003. 11월)

- 실제 경기 확장기에 비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상승하는 시점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경기확장기 및 침체기 중 노동생산성 증감률¹⁾²⁾



주: 1) 경기확장기는 경기 정점 이전 1년

2) 경기침체기는 경기 저점 이후 1년, 2009년의 경우 이용 가능한 2009. 2-4분기 지표만 적용

자료: 미 노동부

3.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labor relocation)

□ 경기침체기에는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이를 대체할 신동력 산업이 나타나더라도 단기간에 이 부문으로 노동력을 재배치하기 쉽지 않음

- 1990~91년과 2001년의 경기순환기중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제조업인데 비해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교육 및 건강서비스, 여가서비스, 정부부문 등이어서

제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서비스 분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직업훈련이 소요

업종별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천명)

	1991년			2001년		
	고용 감소기	고용 회복기	전 체 ¹⁾	고용 감소기	고용 회복기	전 체 ¹⁾
광업	-20	-79	-99	-39	41	2
건설업	-474	-86	-560	-102	395	293
제조업	-635	-263	-898	-2,651	-106	-2,667
도소매업	-421	-27	-448	-972	547	-425
정보업 ²⁾	-13	-30	-43	-552	-103	-655
금융업	-62	54	-8	210	92	302
전문서비스 ³⁾	-237	633	396	-772	724	-48
교육·건강	445	676	1,121	1,125	599	1,724
여가서비스	-76	396	320	177	515	692
기타서비스	-15	81	66	197	-2	195
정부부문	-62	404	342	611	196	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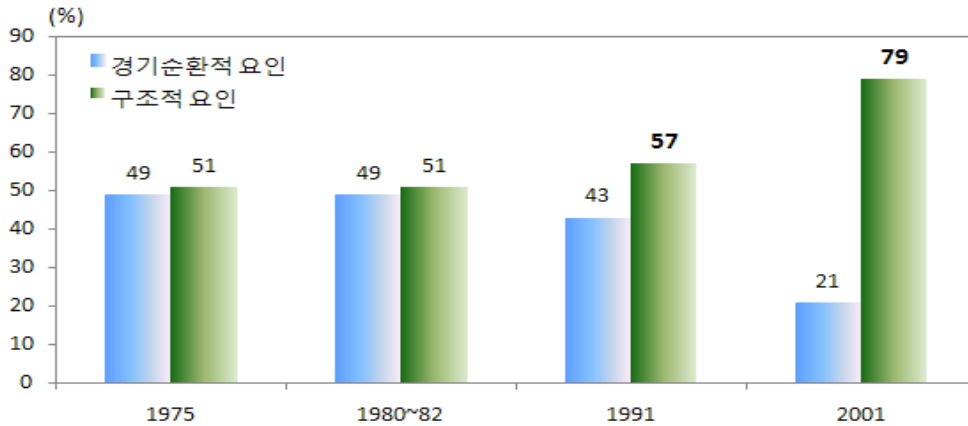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가 직전 경기정점 수준을 회복하는 기간 중

2) 방송, 통신, IT 등 3)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자료: 미 노동부

- 뉴욕 연준에 따르면 두 기간중 고용변화는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구조적¹⁾ 및 경기순환적²⁾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 비중



주: 1) 경기침체기 및 회복기에 모두 고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업종이 대상

2) 경기순응적 및 경기역행적으로 고용이 증감한 업종이 대상

자료: FRB NY, "Has structural change contributed to a jobless recovery?", 2003. 8월

- 또한 산업구조 변화의 대응지표로 이용되는 임시해고 대비 영구해고 배율*도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 경기회복 과정에서 큰 폭으로 상승

* 경기요인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임시해고,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영구해고의 가능성이 높음

임시해고 대비 영구해고 배율



자료: 미 노동부

4. 조직 혁신의 필요성 증대(Organizational Dynamics)

- 경기확장 국면이 길면 길수록 기업조직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침체기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이를 혁신할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신규고용이 부진해질 가능성

*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기업들이 조직 재정비 등의 구조조정을 미루게 되면서 비효율성이 증대

- 실제로 1950년대 이후 7번의 경기확장 기간은 평균 약 46개월이었는데 1991년 및 2001년 경기침체 이전의 경기확장 기간은 각각 92개월 및 120개월에 달해 조직혁신의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추정*

* FRB St. Louis Review, "Organizational dynamics over the business cycle", 2005. 7월

미국의 경기순환 주기

정 점	저 점	침체기 ¹⁾	확장기 ¹⁾
53. 7월	54. 5월	10	45
57. 8월	58. 4월	8	39
60. 4월	61. 2월	10	24
69. 12월	70. 11월	11	106
73. 11월	75. 3월	16	36
80. 1월	80. 7월	6	58
81. 7월	82. 11월	16	12
평균(53. 7월~82. 11월)		11.0	45.7
90. 7월	91. 3월	8	92
01. 3월	01. 11월	8	120
07. 12월	-	-	73
전체 평균		10.3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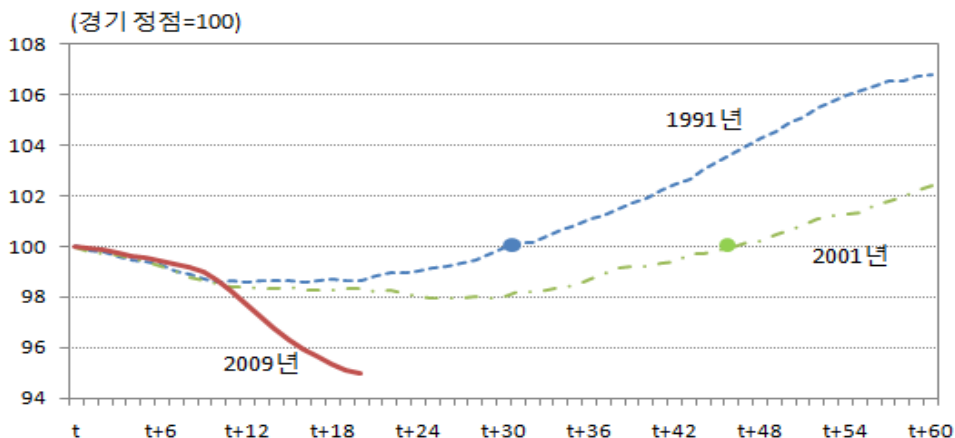
주: 1) 지속기간(월)
자료: NBER

Ⅲ. 향후 전망

- 90년대 이후 고용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
 - 취업자수가 직전 경기 정점의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80년대 이전 경기순환기에는 평균 21개월이었으나 1990~91년 경기순환기에는 31개월, 2001년에는 47개월로 크게 늘어남
 - 고용 사이클의 저점은 1990~91년에는 10개월(정점대비 취업자 증감률 -1.4%), 2001년에는 29개월(-2.0%) 후에 도달

- 2007. 12월을 경기 정점으로 하는 이번 고용 사이클의 양상은 이전 두 번과는 다른 모습
 - 아직 저점 도달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점에서 20개월이 경과한 금년 8월 현재 취업자수 증감률은 정점대비 -5.0%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주: 1) t는 경기 정점(peak)

- 90년대 이후 고용사정 개선을 지연시켰던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 자체도 이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도 “고용 없는 경기회복”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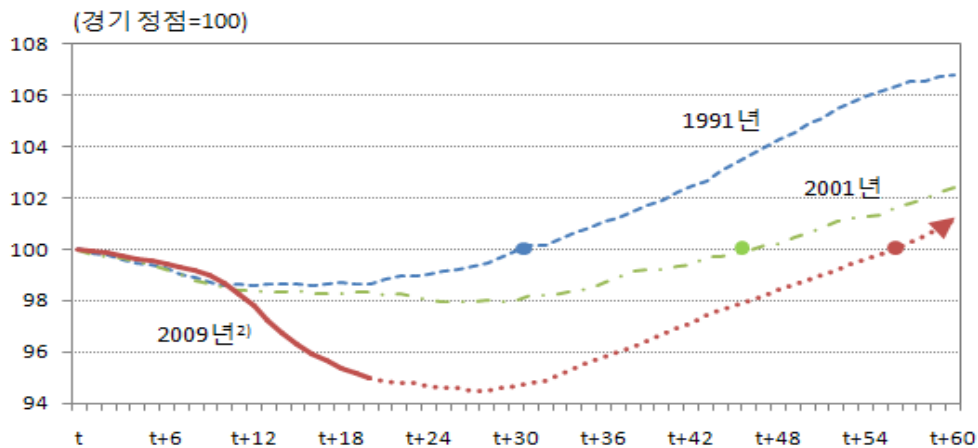
* FRB San Francisco, Jobless Recovery Redux?(2009. 7월)

- 취업자수 하락폭이 훨씬 큰 상태에서 회복 기간이 2001년의 47개월보다 길어질 경우 미국가계의 소비여력이 더욱 약화*됨으로써 상당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물 우려**

*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어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의 주축인 민간소비의 위축이 불가피

** FRB Kansas City, How will unemployment fare following the recession?(2009. 7월)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비관적 시나리오)



주: 1) t는 경기 정점(peak)
2) 2009년의 점선부분은 예상 궤적

- 그러나 고용 사이클이 “V”자형의 궤적을 나타내어 회복기간이 이 전보다 짧아질 가능성도 있음

— 이번 경기침체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고용의 반등폭도 따라서 클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

* 1990~91년과 2001년의 경우 침체 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에는 전후 최장인 19개월 내외(2009. 6월을 경기 저점으로 가정)를 기록할 전망

- 경기침체 기간이 짧으면 침체기 동안 고용조정이 완료되지 못하여 회복기에 들어서도 고용조정이 지속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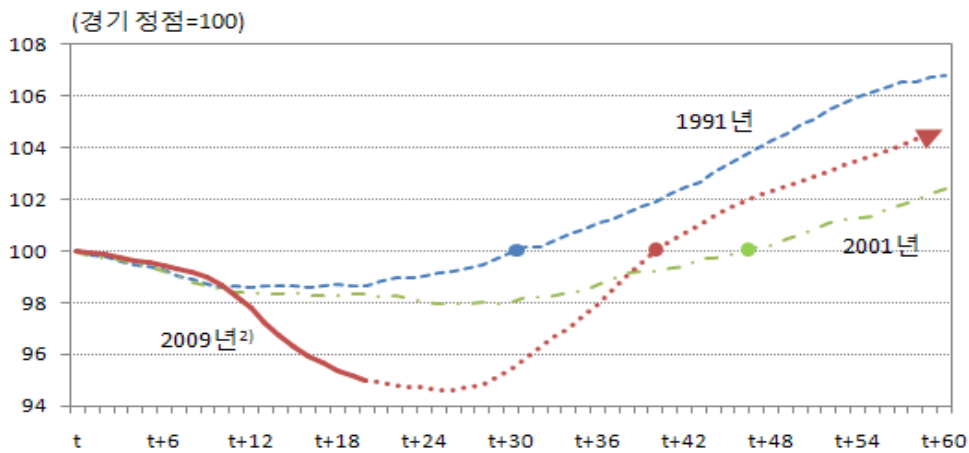
침체기간이 장기화되면 고용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국면에서 고용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

* Morgan Stanley는 이번 경기침체기중 대규모 고용감소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 (2009. 9. 8일)

- 또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금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가능성

* 사상 최대인 7,872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이 본격 시행될 경우 3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낙관적 시나리오)



- 주: 1) t는 경기 정점(peak)
2) 2009년의 점선부분은 예상 궤적